

사회적 합의 매체로서 교회 조직에 관한 연구

- '협약이론'을 중심으로 -

김태황(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논문 초록

교회는 역사적인 보편성과 특이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수직적 관계와 시대적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과정에서 정체성의 유지가 본질적인 과제이며, 구성원의 조직화를 통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속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체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담고 있는 교회 조직의 풍성한 시사점을 고찰함으로써 사회 경제 현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방법론이나 관점을 통해서도 교회 조직을 고찰하고 세상을 향한 영적 직관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협약이론(Théorie de la convention)은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방식 및 '정설(orthodox)'과 '이설(heterodox)'의 쟁점을 유도하는 경제이론의 "이원론적 실제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비(非)상품적 조정체계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시장 조절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탐색으로서 협약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 매체로서 교회 조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구성원과 공동체의 유기적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협약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교회조직, 협약이론, 사회적 조절 체계, 비상품적 관계

2007년 7월28일 접수; 2007년 8월17일 수정; 2007년 8월18일 게재 확정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본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계점들을 엄밀하게 지적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 준 김재봉 교수와 최순권 교수 그리고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평으로 논문 수정 보완에 큰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가 세 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I. 문제제기
- II. 협약에 근거한 사회적 조절 체계
- III. 교회 조직을 바라보기 위한 협약이론의 프리즘
- IV. 사회적 합의 매체로서 교회조직
- V. 맺음말

I. 문제제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창조세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유기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엡1:23, 고전12:13). "부르심을 입은 자"(고전1:2)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며 독자적이고 다양한 소명 양태에 따라 유기적으로 몸을 형성한다. 개체가 모여서 몸과 사회를 구성한다. 교회가 공동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행동 원리에 근거함으로 인해, "교회는 개별화된 구성원들의 개체성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집단성의 구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줄고, 2005, 22쪽). 초대 교회와 교부 시대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교회의 통일성(unity)으로서, 모든 참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점이다. 둘째는 교회의 거룩성(holiness)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회중이며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전(殿)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즉 교회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복음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교회의 사도성(apostolicity)으로,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이다(정성욱, 2005, 174-76쪽). 또한 교회는 "역사적인 보편성"과 "역사적인 특이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와 시대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성찰해야 한다(김영재, 2000). 일반 조직이나 사회에 비해, 교회

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과정에서 정체성의 유지가 본질적인 과제이다.

교회의 역할 수행은 구성원의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삼으신 것과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배반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워 12사도를 조직한 것은 교회를 조직하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일곱 집사의 채택, 선교사 파송, 지역 교회의 감독(장로) 선출 등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교회 조직에 전념하게 된다(김영재, 전계서, 75-79쪽).

초대 교회든 현대 교회든 구성원들은 신앙의 동질성을 구심체로 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질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공동체 의식과 조직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속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체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담고 있는 교회 조직의 풍성한 시사점을 고찰함으로써 사회 경제 현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방법론이나 관점을 통해서도 교회 조직을 고찰하고 세상을 향한 영적 직관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브록(Brock, 2002)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구조를 차용함으로써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경제에 대한 신앙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저자는 솔로몬 왕이 블레셋과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한, 중앙집권적 통치에 의한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하여 페니키아와 호혜적인 대외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고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교역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소유권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줄고(2005)는 교회의 기능을 시장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기능과 조직론의 초보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¹⁾.

1) 물론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과 관점으로 기독교적 경제 원리와 교회를 고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헤이(Hey, 1989)는 청지기적 경제 원칙에 기초하여 시장 자본주의의 자연 질서 파괴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경제 행위,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 등을 비판한다. 마컴(Marcum, 2003)은 주류 경제학이 지나치게 물리학적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으로 인해, '효용 극대화'라는 단선적인 목표와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목적은 시장 조절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탐색으로서 협약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 매체로서 교회 조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협약이론은 주류 경제학의 완전 경쟁 시장 중심의 상품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한 비(非)시장적인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한다. 교회는 구성원과 공동체의 유기적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협약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현실적 모형이라면 교회 조직의 사회적 조절 체계를 통해 이 땅의 경제체제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대안적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와 시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험적인 탐구의 일환이다.

Ⅱ장은 사회적 의사조절 과정으로서 '협약(la convention)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협약이론으로부터 교회 조직을 바라보기 위한 유효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Ⅳ장은 협약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조절 체계로서 교회 조직을 재발견하려는 시도를 제시했다.

인간의 본성과 행동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경제학은 청지기 정신, 정의, 복지 등 성경적 원칙들을 경제 현상에서 재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소어(Sauer, 2003)는 경제학 탐구의 초월적 측면을 강조한다. 저자는 물질적(경제적) 가치의 내재적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 가치를 시험하는 초월적 가치(기독교적 윤리)를 경제 분석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유익하다고 논증한다. 박득훈(2004)은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미시적 생산관계와 정부, 시장, 시민단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거시적 생산 조정의 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도 경제학적 방법론을 배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II. 협약에 근거한 사회적 조절 체계

시장 조절 체계에 대한 비판적이고 보완적인 논의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장의 자동 조절 장치는 그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사회 구조적, 경제적 요소들로 인해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견지에서 보면, 시장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관리비용(management cost)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Coase, 1987, Williamson, 1981, Alchian and Demsetz, 1972). "개별 행위자들의 집합으로서의 경제조직은 가격체계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Arrow, 1974a, p.33). 또한 경제적 조직은 이질적인 참여자들로 구성된 소그룹들 간 연합이며 내부 결집력을 가진다(Ménard, 1997).

1. 협약의 개념

근대 주류 경제학은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경제적 주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경제적 주체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로 지칭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별 존재이다. 후자는 상충될 수 있는 개인적 의사결정들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라는 점을 나타낸다(Arrow, 1974b, pp.1-2). 이러한 가정에 따라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상품적 거래를 성립시키는 중심 논리가 되며 실질적인 사회적 구조가 된다. 하지만 광의의 조직(organizations), 제도(institutions), 사회규범(social norms) 등에 의한 의사결정과 행위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시장 조절 논리와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 유연한 조직 내부 행위, 제도적 규제, 사회규범에 의한 가치 판단 등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은 효용 극대화라는 단

일 목표를 추구하는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분명히 포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협약이론(Théorie de la convention)은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오를레앙(Orléan, 1994, pp.14-16)은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방식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개인들(경제적 주체)이 합리적 선택이론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조절체제와 개인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총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조절체제를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설(orthodox)'과 '이설(heterodox)'의 쟁점을 유도하는 경제이론의 "이원론적 실제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즉 협약이론은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적 사고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매우 다양한 비(非)상품적 조정체제(diverses de coordination non marchandes)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직으로서의 기업,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의 중앙은행, 개인들의 의사조정을 위한 규범 등의 조정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자는 의도이다²⁾.

2) 1970년대부터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탐색해 온 '조절이론(théorie de la régulation)'이 주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개별 국가의 사회 제도적 형태들을 고찰해 온 것에 비해, 협약이론 탐구자들은 1980년대부터 미시적 조절체제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1984년 11월 22-23일 INSEE-CNRS이 좌담회 개최, 1986년 샬레(R. Salais)와 테베노(L.Thévenot)의 편저작 *Le travail, marchés, règles, conventions*, 출판, 고용연구센터(C.E.E.)가 1985년 "경제협약"이라는 제목의 특별판으로 출간한 논문집 29호, *Les Cahiers du Centre d'Etudes de l'Emploi*의 발간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86년 9월부터 1990년 말까지 응용인식론연구센터(CREA)가 "시장, 규범, 협약(Marchés, normes, conventions)"의 이름으로 조직 운영한 세미나 논문집, 1989년 경제 전문 학술지 *Revue Economique*, 특별호에서 "협약 경제(L'économie des conventions)"란 제목으로 게재된 일련의 논문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3월 파리 제10대학교에서 CREA, C.E.E., CAESAR 공동으로 개최된 콜로키움 등은 협약이론의 형성에 중심축이 되었

프랑스어로 "convention"(협약)은 어원학적으로 13세기에 등장한 용어로서 '함께 오다', '동의하다'의 뜻을 지닌 라틴어 *convenire*에서 파생된 *conventio*에서 유래된다. 그리하여 '협약'은 특정 시기의 참여자들 모두를 함께 소통시킴으로써 '공동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요소들 총체를 내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된 합의는 세부 항목들이 명확하고 독자적이고 의식적인 합리성(rationalité)과 의도성(intentionnalité)을 반영하는 사전적(事前的) 서술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저절로 나아가고 또 저절로 나아가려는 것과 같이 인식되어진 능력과 행위들에 대한 상호 기대체제이다."(R. Salais, 1989, p.213) 계약(contract)은 당사자들을 자신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자리매김해 주며 그 자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반면에 '협약은 상반된 논리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상호 만족하기 위해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 상충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 형태이다. 이를테면, 경영자(사용자)는 생산품에, 근로자(피고용자)는 임금에 각각 관심을 집중시킨다 하더라도 이들의 연합과 기업 내 활동들은 양자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 갈등적이면서 동시에 협조적인 상황을 상정한다면, 원칙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합의에 대한 시도만으로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등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노사갈등이 그 예가 된다. 이 경우에는, 노동 대(對) 임금의 관계 설정보다는 노동 대(對) 생산물이라는 대등적 관계가 보다 폭넓은 현실 영역을 매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약이론의 탐구자들은(R. Orléan, Ibid.) 다양한 영역에서 비상상품적 조정형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장 조절체제를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는 조직으로서 기업을 살펴보고, 집단적 영역에서 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중앙은행 제도를 고찰한다.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보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으며, 오를레앙(A. Orléan)의 1994년 편저작은 탐색적 연구들을 종합 검토한 내용이다.

한 기술표준 유형들, 동일 집단 내 개인들 간 의사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행동 규범, 집단적 학습 과정과 절차로서 사회 공정성의 문제 등 개인적인 행동들의 집단적 또는 공통적 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학제간 공통 이론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협약이론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해된다.

2. 협약과 집단적 조절 장치

협약 과정은 상호 이질적인 참여자들(경제 주체들)이 집단적 조정과정(collective coordination)을 통해 공통으로 지향하는 지표(sign, mark)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지칭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개별 경제주체는 상호 어긋날 수 있고 분산될 수 있는 개인적 기대와 의견들을 공통의 접점으로 모을 수 있는 절차나 장치를 필요로 한다. 기업문화의 기능을 예로 들어 보자. 비록 현재 기업 활동이 균형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 균형 상태는 항시라도 깨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특한 기업문화는 구성원들을 특정한 지표, 즉 다시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경로로 유도하게 된다. 기업문화는 구성원들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공통성을 제시한다. 개별적인 상품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의 정체성과 집단성을 방어하고 공유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협약에 이르는 과정은 확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이거나 반대로 완전히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인식 결과로서 균형점에 도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공동 지표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협약에 의한 조정은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서로 조정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도 공동 지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의 토대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약이론 탐구자들은 셸링(T. Schelling, 1960)의 공동초점(focal point) 개념이나 루이스(D. Lewis, 1969)의 상식

(common knowledge) 개념으로부터 협약에 이르는 인식론적 근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커로프(G. Akerlof, 1970)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고찰을 수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정보에 대한 불확실한 시장 조정체계의 보완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협약이론 체계를 통해, 경제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상호작용과 조절 장치가 시장의 상품 교환관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지는 개인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고, 조직의 활동이 조절되는 체계가 비(非)가격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버로(O. Favereau, 1989)는 시장 조절 체계를 보완하는 자원 배분 양식으로서 조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조직의 내부 규율(rules)이 모든 경제 활동과 교환관계의 실체를 명시하지 못하는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강할 수 있으며, 조직 내부의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집단적 조절 장치로서 고려할만하다는 점을 논증했다. 살레(L. Salais, 1989)는 노동시장의 임노동 관계가 두 가지 동등 원칙에 대한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노동협약'을 고찰했다. 저자는 임금 대(對) 미래 노동시간의 상품적 관계와 노동시간 대(對) 상품의 비(非)상품적 관계의 논리적인 모순을 노동협약의 개념으로 재해석했다. 즉 노동의 결과인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 강도를 예상하여 계약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노동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투입된 노동시간(노동가치)이 미래 상품 가격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고용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의 상품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은 "생산성 협약(la convention de productivité)"이 되며, 노동시간과 상품의 가치를 동등시하는 것은 "휴업(실업) 협약(la convention de chômage)"이 된다. 테베노(L. Thévenot, 1989)는 다양한 조정 방식과 균형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영역에서는 시장, 조직 또는 제도 개념들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행위들이 어떤 조직이나 명성, 신뢰 등을 통

해 정당하게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마르 뒤베르네(E. Eymard-Duvernay, 1989)는 산업 생산 차원에서 협약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대량 및 표준화 생산이 보편화되고, 생산과 교환 수단이 다양화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산업 자원의 축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품질협약(la convention de qualit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기계 설비 장비의 품질뿐만 아니라 조직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노동력 품질 등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상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교회 조직을 바라보기 위한 협약이론의 프리즘

교회 조직을 이해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교회는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항목들 가운데에서도 동기가 세속적이면 결코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송인규, 2001, 59-67쪽). 교회의 조직과 활동 가운데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활동 주체와 그들의 행동양식 그리고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협약이론을 통해 교회 조직을 바라보기에 유용한 세 가지 관점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협약이론은 상반된 논리로 상충된 이해관계와 활동 주체들이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고찰한다는 점이다. 일반 사회 조직에 비해 교회는 훨씬 다양한 동기와 관점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성원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수직적인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역하고, 빈부 격차로 격리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예배당에 참여하며, 상반된 사회적 이념으로 상호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 조직이 교회이다.

둘째, 협약이론은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협약을 통해 상호 접점을 형성하고 조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협약의 프리즘을 통해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만 집단을 형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체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고찰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의 목적은 불확실한 여건과 관계의 제약사항들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관심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과 동역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점의 설정, 참여 주체들의 관계와 행동양식, 공동의 목표 추구 등의 측면에서 협약이론의 논지는 교회 조직을 고찰하기에 유익한 관점의 틀을 제시한다.

IV. 사회적 합의 매체로서 교회 조직³⁾

교회를 협약이 형성되는 기반으로서의 경제조직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교회의 실체와 역할을 설명하기에 유효하다.

첫째, 교회는 집단적 특성을 가지는 의사결정 공동체이다. 시장론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시장 기능은 분산되고 개별화된 개인의 몫으로 주어진다. 구성원들 간 원천적인 상호 관계와 작용은 도외시된다. 의사결정이 집단성을 가진다는 것이 획일화된 집단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의 집단적 동기부여에 의해 조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적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몬(H. Simon, 1991)이 고찰한 네 가지 조직현상 - 권위(authority), 보수(rewards), 동일시(identification), 조정(coordination) - 가운데 '권위관계'와 '동일시'를 교회 활동에 적용해 보자. 교회의 '권위관계'는 현실적으로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정보 전달 여건 속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3) 줄고(2005), 36-38쪽 참조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합의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또한 목회자의 상대적 권위를 수용 가능한 영역 내에서 인정하는 대가로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목회자의 중간자 역할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적인 정보 해석과 판단 및 선택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회의 다른 조직 현상은 '동일시'를 통해서도 관찰될 수 있다. 개별 교인은 교회의 조직 행위에 참여할 때 충성심(loyalty)의 교환체계를 통해 개인 구원의 사적 목적을 공동체 구원의 집단적 목적과 동일시하는 경향에 주목할 수 있다. 개인 행위들이 교회 내에서 충성심을 나타낼수록, 교인들은 구성원으로서 더욱 강하게 교회(조직)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교인이 교회의 집단적 규범에 순응해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향한 사회적 의사소통, 집단적 학습, 나아가 교인들 간 및 교회와 지체(교인) 간 상호 침투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집단적 합리성에 따라 개인행위들을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심의 개념과 표현 방식은 중세적 교회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가 맹목적 수직적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자는 자발적 수평적 조직관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가 보다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선택과 의사결정이 집단성을 내포한다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을 추구한다는 의미와 연결된다.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태적이거나 단면적 현상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이라면, 구원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교회도 동태적 과정에서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합리적 선택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교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눅 9:23) 자들이 '날마다' 자기성찰과 부르심의 은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질적이나 조직 차원에서는 동질적인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보 체계를 형성하는 중심체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된다. (경제)조직 내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구성원들 간 내부 과정을 통해 목표 지향적으로 재가공되고 재해석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먼저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즉, 교회는 구성원들의 상호 침투적 관계망에 기반을 둔 내부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정보를 내부화하고 개별 전달 경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한다. 구원의 길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교회의 집단적 정보 체계를 통해 구원의 길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또한 교회를 조직체로 관찰함으로써 교회가 불필요한 정보를 여과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 자체의 제약 사항들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과정과 정보 체계에서 비롯되는 제약 사항들, 지역 교회들 간 관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약 사항들에 직면하지만 내부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해 낸다.

넷째, 교회에 대한 조직론적 관점을 통해 성경의 청지기 모델을 고찰할 수 있다. 선한 청지기의 봉사(벧전 4:10)는 조직의 유기체적 상호 관계에서 이뤄진다. 청지기가 맡은 바 은사를 교환하는 것은 몸 된 교회에 거시적 유익을 끼치는 동시에 지체된 구성원에게 미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몸이 성장하기 위한 지체의 봉사와 지체를 돌보는 몸의 방어기제는 경제조직 구성원들 간 상호 작용과 내부 게임 룰의 조정 과정과 연계될 수 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학습시키는 것은 청지기적 수행을 위한 조직 훈련 과정으로 이해된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므로 소유 개념에 충실한 시장론의 관점보다는 내부 관리 개념에 비중을 두고 있는

4) 사이몬(H. A. Simon)에 따르면, 절차적 합리성은 본질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제도적 여건과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사이몬의 시장과 조직에 대한 최근 탐구는 사이몬(1991)을 참조하라.

조직론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V. 맺음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몸 된 교회에는 지체들이 속해 있다. 몸과 지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식에 민감해야 한다. 시장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활동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반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배분의 효율적 기능들 가운데에는 기독교 경제학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 성경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보면 시장 체제가 불안정하지만 이는 인간 본성의 타락이라는 본질적인 제약 조건에서 비롯된 측면을 감안할 수 있다.

교회의 기능을 개인주의적인 시장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의 교환, 경쟁을 통한 지체의 기능 강화, 하나님 나라의 정보 공유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교회 내부 제도적 요소들과 구성원들 간 복합적인 상호 관계 및 작용들의 역동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관리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청지기적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영역의 상호 침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역동적인 조직 활동, 하나님 나라의 정보 전달 과정 등을 포괄하는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개인과 교회의 청지기직은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이르는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포함하므로, 교회가 유기체로서 조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체는 몸과 지체 및 지체들 간 유대(solidarity)에 의해 운동한다. 교회 조직의 내부 운동력은 유기적 유대(organic solidarity)를 기반으로 한다.

교회의 시장 기능과 유기적 조직 기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보다는 기독교 관점이 본류임을 재확인하면서 시장 경제론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적인 주류 경제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보완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하는 중심 체계가 되어야 하므로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재 (2000), 『기독교 교회사』, 이레서원
- 김태환 (2005), "교회의 시장론에 관한 고찰", 『기독교경영연구』, 제2권 제호, 기독교경영연구원, 21-40.
- 박득훈 (2004), 「대안 경제 체제를 향하여」, 한국기독교윤리학회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편, 『경제 문제와 기독교 윤리』, 서울, 예영, 247-293.
- 이준구 (1998), 『미시경제학』, 제3판, 법문사.
- 송인규 (2001), 『평신도 신학 1, 2』, 홍성사.
- 정성욱 (2005), 『스피드 조직신학』, 홍성사.
- 찰스 콜슨 (1997), 『이것이 교회다』, 홍성사.
- Akerlof, G. (1970),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488-500.
- Alchian A.,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5, 777-795.
- Arrow, K. J. (1974a), *The Limits of Organization*, Noton, New york, London.
- Arrow, K. J. (1974b), "Limited Knowledge and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74(1), 1-10.
- Arrow, K. J. (1984),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Knowled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

- Brock, G. W. (2002),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Faith & Economics*, 39, spring 2002, 1-13.
- Coase, R. H. (198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etrica*, New Series 4(1937), translated in French, *Revue française d'économie*, vol.2, n° 1, 133-163.
- Eymard-Duvernay, F. (1989), "Convention de qualité et formes de coordination", *Revue économique*, 40(2), 329-359.
- Favereau, O. (1989), "Marchés internes, marché externes", *Revue économique*, 40(2), 273-328.
- Hey, D. A. (1989), *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 IVP, 전강수 외 옮김,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서울, IVP, 1996.
- Lewis, D. K. (1969), *Convention : A Philosophical Study*, Cambridge(US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cum, J. A. (2003), "Contemporary Philosophy of Science and Neoclassical Economics: An opportunity for Christian Economics?", *Faith & Economics*, 42, fall, 4-16.
- Ménard, C. (1997), *L'économie des Organisations*, Paris, La Découverte.
- Orléan, A. dir.(1994), *Analyse Economique des Conventions*, Paris, PUF.
- Salais, R. (1989), "L'analyse économique des conventions du travail", *Revue économique*, 40(2), pp.199-240.
- Sauer, J. B. (2003), "Christian Faith, Economy, and Economics: What Do Christian Ethic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Economics?", *Faith & Economics*, 42, fall, 17-25.
- Schelling, T. C.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H. A. (1991), "Organizations and Marke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5, 2, pp.25-44.
- Thévenot, L. (1989), "Equilibre et rationalité", *Revue économique*, 40(2), 147-197.
- Williamson, O. 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7, 3, 548-577.

Abstract

Study on Church Organization As Social Consensus Medium

- Based on the 'Convention Theory' -

Tae Hwang Kim(Myongji University)

As church has a historical generality and specificity, we have to consider current horizontal relations as well as spiritual vertical relation. The essential concerns of the church are to conserve its identity in the passage of time and space, and it makes its own role by organizing members. It's impossible to reduce the church as "Christ's body" to socio-economic organization. But examining the abundant implications of the church organization which contains God's perfect plans, we could comprehend synthetically of socio-economic phenomena. We need, in this context, to have a spiritual intu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hurch organization by means of economic methodology and viewpoints. The 'convention theory' tends to criticize the constraints of the orthodox neo-classical economics and to enlarge economic consensus as social science. It is motivated by two steps : 1) by rejecting the dualistic substance of the economic theory which gets to a dualistic approach of capitalist merchant relation and to a controversy of orthodox and